

라이더컵 단장 내던진 스텐손 '잭팟'

미국과 유럽의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유럽팀 단장을 내던지고 LIV 골프로 전향한 헨리크 스텐손(46·스웨덴·사진)이 잭팟을 터뜨렸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스텐손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6승을 쌓았고 유럽투어인 DP 월드투어에서 11승을 거둔 베테랑이다.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으로 출범한 LIV 골프 인비테이션 시리즈 합류 제의를 받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미국과 유럽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 유럽팀 단장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불과 4개월 만에 마음을 바꿨다. 거액을 내건 LIV 골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결국 PGA 투어를 버렸지만 LIV 골프 3차대회 정상에 올라 '잭팟'을 터뜨렸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3차대회(총상금 2,5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1언더파 202타를 기록하며 전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41·미국), 매슈 울프(23·미국) 등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스텐손은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달러에 단체전 준우승 상금 37만5,000달러를 더해 이번 대회 상금으로만 무려 437만5,000달러를 거머쥐었다. 이는 2016년 스텐손이 메이저 디 오픈에서 우승할 때 받은 상금의 두 배가 넘는다.

이제 디 오픈에서 우승할 때 받은 상금의 두 배가 넘는다.

스텐손은 LIV 골프로 옮기면서 계약금 5,0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텐손은 5년 전인 2017년 8월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이 마지막 우승이었다.

스텐손은 1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사진=thestar.com

카와이 레너드, NBA 판도 흔들까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사진)가 오는 10월 2022-2023 정규시즌 개막에 맞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이후 16개월 만에 공식 경기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농구 전문 매체 '루키'에 따르면 레너드는 부상 이후 꾸준히 복귀를 위한 회복과 재활에 집중해왔다. 지난 시즌 중 복귀 루머가 잠시 떠돌았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결국 클리퍼스는 레너드 없이 시즌을 마무리했다.

레너드는 최근 정상적으로 농구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말에 있을 트레이닝 캠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레너드가 건강하게, 부상 이전의 기량을 유지한 채 복귀할 경우 클리퍼스는 단숨에 우승 후보로 발돋움할 수 있다. 물론 다음 시즌 서부에는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를 비롯해 시즌 리그 1위를 차지한 피닉스, 신흥 강호 멤피스 등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강팀들이 많다.

하지만 로스터만 보면 클리퍼스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카와이 레너드는 공수 모두에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우승청부사다. 2019년 토론토에서 이룬 우승을 통해 이 사실이 증명됐다.

카와이 레너드를 앞세운 클리퍼스가 다음 시즌 우승 레이스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sportsnaut.com

조코비치 'US오픈 출전 허용' 글로벌 청원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 7위·사진)의 US오픈 출전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조코비치의 US오픈 출전을 허용하라는 글로벌 청원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원 내용 전문은 이렇다. "현재 팬데믹 단계에서 조코비치가 US오픈에서 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 USTA(미국테니스 협회)는 조코비치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국 선수들이 플레이할 수 있다면 레전드 중 한 명인 조코비치도 플레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뤄내 주세요. USTA!"

'테니스코리아'는 최근 조코비치의 US오픈 출전을 지지하는 청원이 청원 플랫폼, 체인지(change.org)에서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2만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들 허용해야 합니다. 이뤄내 주세요. USTA!"

체인지는 전세계 196개국에서 2억명 이상이 이용 중인 세계 최대 청원 플랫폼이다.

조코비치는 지난 20일 US오픈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을 유지하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조코비치는 미국 입국 제한으로 US오픈 출전이 불투명해 졌다.

US오픈은 8월 29일 개막한다. 체인지의 청원이 조코비치의 US오픈 출전 가능성에 어떤 변수를 가져다 줄지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sports.ndtv.com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속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